****

**담당 : 홍보팀 임정수 차장 ㅣ Office : 02)560-44434 ㅣ Mobile : 010-7680-865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6:00 ㅣ 보도 일시 : 2025년 4월 2일(수) 16:00**

**대회 공식기자회견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
| 2 | 기 간 | 2025년 4월 3일(목) ~ 4월 6일(일) |
| 3 | 장 소 | 동래베네스트 [아웃(OUT) / 인(IN)코스]  |
| 4 | 주 최 | 두산건설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2억 원 (우승상금 2억 1천6백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79야드 |
| 8 | 참가인원 | 120명 |
| 9 | 주요출전선수 | 황유민, 박보겸, 신지애, 박현경, 박지영, 마다솜, 이예원, 배소현, 고지우이가영, 김수지, 리슈잉, 유현조, 전예성, 김우정, 송은아, 박지혜3, 조이안황민정, 짜라위 분짠, 임희정, 박결, 유효주, 이율린, 박혜준, 유현주, 김민솔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2라운드] 11시 ~ 17시[3라운드] 10시 ~ 16시[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공식기자회견 코멘트**

**대회 참가 소감(공통)**

임희정 - 훈련 태국 1달 다녀왔다. 작년 부족했던 쇼트게임과 비거리 위주로 연습했다. 이번 대회 날씨도 좋고 코스 조경도 좋아서 플레이하면서 재미있겠다는 생각했다.

박혜준 - 태국으로 전지훈련 다녀왔는데, 우승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왔다. 메인 스폰서 대회라 마음가짐 다르다. 최선을 다하겠다.

신지애 - 올해 두산건설 서브 스폰 맺었다. 소속 선수다 보니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작년에 이 대회 출전할 때 ‘만남’에 의미를 뒀다면, 올해는 ‘보답’이라는 의미를 두고 플레이하겠다.

황유민 - 디펜딩 챔피언으로 국내 개막전을 시작하는데, 작년과 코스가 달라져서 안 쳐본 코스라 새로운 코스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플레이하고 싶다.

박보겸 - 올해 변화를 많이 줬는데 지난 대회 우승했다. 이 감을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 내보겠다.

박현경 - 이 대회를 좋아한다. 재작년 4위, 작년 3위하면서 좋은 스타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좋은 등수로 첫 단추 잘 꿰겠다.

**전지훈련(공통)?**

박현경 - 베트남 호치민 6주 다녀왔다. 긴장되고 부담되는 상황에서 일정한 스윙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녀와서도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아직 원하는 만큼의 감은 아니다. 진행형이다.

박보겸 - 하와이 2주, 삼천리 구단 1달 동안 다녀왔다. 하와이에서 구질 바꾸고 삼천리 전지훈련에서는 적응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금도 계속 적응해나가고 있다.

황유민 - 베트남 5주 정도 다녀왔다. 그린 주변 쇼트게임이 불안해서 그 부분에 올인했다. 대회 하면서 긴장되는 순간에 나아진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면 될 것 같다.

신지애 - 호주로 4주 정도 다녀왔다. 특별히 바뀐 것 없고 늘 하던대로 했다. 노력이 쌓여서 좋은 기록이 남는 거라 생각한다. 전지훈련 기간을 좋아한다. 오롯이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박혜준 - 태국 7주 정도 다녀왔다. 작년에는 확실한 구질이 없었는데, 드로우를 구질로 만들고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60미터 안쪽의 어프로치 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왔다.

임희정 - 태국 4주 정도 다녀왔다. 스윙 교정에 신경 썼고, 다녀온 이후에는 코스에서 플레이하며 경기감을 끌어올리려 노력했다.

**시즌 목표(공통)**

임희정 - 지난 시즌 우승 없어서 우승하고 싶다. 상반기 우승 물꼬 트는 것이 목표다.

박혜준 - 아직 우승 없어서, 우승 꼭 하고 싶다. 특히, 메인 스폰서 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하면 좋겠다. 다승도 하고 싶다.

신지애 - 매년 다짐하는 게 골프 미칠 수 있도록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몰입하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황유민 - 매년 1승씩 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승하고 싶고, 기회 주어졌을 때 해외 대회 나가서 좋은 결과 얻고 싶다.

박보겸 - 다승왕 해본 적 없다. 개막전 우승했으니 마음 편하게 우승 하나 더 하고 싶다.

박현경 - 1차 상반기, 빠른 시일 내 우승하는 것이고, 2차는 꾸준한 성적을 바탕으로 대상을 노리고 싶다. 한 시즌에 톱텐 14번까지 해봤다. 올 시즌에는 톱텐 15번 이상 드는 것도 목표다.

**신지애) 일본 상금왕이라는 목표?**

일본 투어 진출하면서 상금왕을 목표로 했었다. 작년에는 해외 투어 집중했다면, 올해는 일본 대회에 집중해서 상금왕 노려보겠다. 약속 지키고 싶은 마음 크지만, 체력적인 부분이 점점 힘들어져서 빠르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항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과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지애) 컷탈락 없는 선수인데, 노하우?**

후배들이 많이 물어본다. 골프라는 게 안될 때도 있지만, 플레이 안에서 변수 요소가 많은 것이 골프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코스 안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대처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만 너무 생각하기 보다는 과정을 잘 만들면 좋은 결과는 따라온다고 후배들에게 얘기해줬다.

**황유민) 타이틀 방어, 신지애 선수와의 경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신지애 선수 존경하는 선배이고 살아있는 전설인데, 내일 같이 치게 돼서 영광이다. 우승 많으신 건 분명히 이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서 잘 쳐보겠다.

**신지애) 후배들과 경쟁? 목표?**

선수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후배들이 나처럼 오래하고 싶다고 얘기해주더라.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골프, 생활, 자세에 대해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후배들은 더 열심히 해서 내 기록을 넘으면 좋겠다. 길 터주면 후배들이 따라올 것이고, 또 그 후배 선수들의 후배들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 유민이가 배운다고 했지만, 내가 오히려 좋은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황유민) 올해 3년차,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뭐가 제일 나아졌나?**

사실 아직 시즌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원래 감정기복이 심한 선수인데, 좋아하는 골프를 힘들게 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긍정적으로 재밌게 해야 오래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황유민) 미국 도전?**

어렸을 때부터 미국 투어에 대한 꿈이 커서, 빨리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도전해보겠다.

**공통) 코스? 공략 포인트?**

박현경 - 어제 프로암 하면서 처음 경험해봤는데 많이 못쳤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스 전장이 짧지 않고 그린 경사 있고 그린도 작다. 그린 플레이가 중요하다. 지켜야 할 홀에서 잘 지켜내고, 버디를 잡을 홀에서 잡아내는 공략을 잘 해야 한다.

임희정 - 그린 스피드가 빨라 놀랐다. 퍼트 할 때 길을 잘 그려야 한다. 샷 공략할 때 핀 아래쪽에서 오르막 퍼트 노릴 것이다. 어프로치 미스하면 바로 보기로 이어질 것 같다. 잔디가 결도 많이 타는 편인데, 그린에도 역결과 순결이 섞여 있어서 잘 파악해야 한다.

황유민 - 그린이 까다롭다. 세컨드 샷 공략 잘해서 밑에서 버디 찬스 만들어야 한다.

신지애 - 시기적으로 잔디 관리하기 힘든데, 코스 컨디션이 정말 좋아서 놀랐다. 전체적으로 포대 그린인데, 그린이 안보이는 홀도 많아서 이미지를 잘 만들어야 한다. 광고 보드 없이 플레이하게 되면서 코스 조경이 눈에 잘 들어온다. 플레이어 입장에서 코스가 정말 아름다워서 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박보겸 - 부산, 동래베네스트 모두 처음이다. 그린 사이즈 작고, 전장도 생각보다 길다. 너무 공격적이기 보다는 순탄하게 플레이할 생각이다. 그린 경사도 심해서 신경 많이 써야 한다.

박혜준 - 코스가 생각보다 길다. 세컨드 샷이 길면 어려운 상황이 온다. 온 그린 실패했을 때 쇼트게임 잘해서 지켜야 할 것 같다.

**신지애) 잘 안될 때 극복 방법 후배에게 조언한다면?**

나에 대해서 분석하고 파악하려 노력하라고 하고 싶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 아는 만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연구했으면 좋겠다.

**공통) 이번 대회 우승 후보**

박혜준 - 박보겸. 개막전 우승하기도 했고, 연습 그린에서 봤는데 예사롭지 않았다.

박보겸 - 임희정. 샷 느낌, 감이 좋은 것 같다.

신지애 - 어떤 선수가 잘 할지 꼽기가 어렵다. 모든 선수가 우승 후보다.

황유민 - 박보겸. 태국에서 치는 것 방송으로 봤는데 정말 잘 치시더라.

임희정 - 황유민. 벌써 우승이 많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박현경 - 황유민. 시즌 초반 좋은 흐름 타고 있다고 생각.